

녹취록

녹음일자	2020. 11. 17.
작성일자	2020. 11. 24.
녹음파일명	01036745542_20201117183957.m4a
의뢰인	김상원
속기사	김태연
내용설명	가해자와 김상원의 통화 내용

본 녹취록은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디지털 파일 자료와
의뢰 내용에 근거하여 생산된 문서이고
제시된 자료와 그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디지털 파일의 위, 변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업자명	김태연속기사무소
사업자번호	283-29-00912
속기사 자격번호	16-G1-RT0935



1



가해자

네가 인마, 네가 누가 어떻게 알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형님이라 그래. 이 자식 아, 후레아들 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

김상원

아, 선, 선생님이라 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가해자

이런 시벌 새끼가, 이거.

김상원

아, 제가 선생님이라 했습니다. 제가.

가해자

이걸 네가, 내가 지금 이걸 경찰서에 날라 왔는데, 어제 봤는데,

김상원

예.

가해자

어?

김상원

저는 안 올렸습니다. 정말.



가해자

이런 시발 이거, 네 거 신분증 갖고 내가 지금 다 가실 판이네. 이거.

김상원

아, 정말 안 올렸습니다. 저는.

가해자

안 올린 것이 이게 나왔네? 이것이?

김상원

아, 억울합니다. 저는 진짜 인터넷에..

가해자

몰래 왜 사진 찍어. 인마, 그면 그것을.

김상원

그니까 저는 안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저,

가해자

뭐?

김상원

저는 안 올렸습니다. 선생님, 진짜.

가해자

뿔하게 사진을 찍어. 이 자식아, 근게 인마, 네가 뿔하게 사진을 찍을 이유가 뭐



있어? 인마, 네가. 왜 그래,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김상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 진짜 안 올렸습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진짜.

가해자

이런 시발 새끼가 지가 올려놓고 인마, 이것이 날라왔는데 인마, 안 올렸다 그래?
이 자식아?

김상원

정말 안 올렸습니다. 진짜.

가해자

교통질서 안내장 해갖고는 날라왔는데, 이 자식아?

김상원

아, 저는 안 올렸습니다. 정말.

가해자

이런 시발놈의 새끼가 거짓말, 네가 안 올렸다고 니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
지, 인마, 네가 했다고 할 놈이냐? 그것이야? 네가? 입으로?

김상원

아니, 정말 안 올렸습니다. 지, 진짜 제, 그럼 인터넷도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
가 보여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따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



가해자
무엇을 봐?

김상원
이따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가해자
뒤통하게 내가 너를 만나. 이 자식아.

김상원
아니, 진짜 진실을 들으셔야죠. 제, 제가 안 했다는 걸 들으셔야죠.

가해자
그럼 네가 안 한 것이 이렇게 경찰서에서 날라오네? 딱지가?

김상원
저도 모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뭐..

가해자
그럼 뭐 할라고 사진을 찍어. 이 자식아, 후레아들 놈의 자식아, 근게. 왜 내 자동차 사진을 찍냐? 넘버를.

김상원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가해자



아파트 앞에 지금 지하철 인마, 지역까지 찍어? 이 자식아? 내 눈을 내가 안 봤으면 몰라. 내가 그 보고 내가 그날 너 죽여버릴라고 했어. 내가.

김상원

정말 안 올렸습니다. 선생님. 진짜 진실 밝혀 드릴 테니까 이따 만나시죠. 선생님, 그럼.

가해자

뭘 만나, 이 자식아. 내가 너를.

김상원

아, 만나서 얘,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제가 진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해자

내가 너를 만나긴 만나면 내가 너 가만히 두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가. 인마, 내가 너는.

김상원

그니까 저는 안 올렸습니다. 선생님.

가해자

이런 후레아들 놈의 새끼가 이게 진짜, 이것이 인마 이 교통질서 안내장이라 해가지고

김상원

예.



가해자

차 넘버 적어지면 인마, 다 이름이 다 뜨는 거여, 이거.

김상원

아니, 안 올린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진짜 안 올렸습니다.

가해자

야, 이 자식아. 이것이 여기서 찍은 것이 아니라 이거 효자동에서 거시기 해갖고 안양구 주소 해놔갖고 위반 시간, 위반 차량 해 가지고 위반 사항은 진로 변경, 응?

김상원

아니, 저 말고 블랙박스 찍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가해자

이런 시발, 누가 블랙박스를 찍어? 이 자식아, 이걸.

김상원

그리고 그쪽 순찰, 단속한다고 그때 뭐 순찰 신문고에도 올라왔었습니다. 선생님.

가해자

참, 네 생각이고.

김상원

아니, 순찰 신문고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전 안 올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가해자

내가 가만 있들 안 둘 거야. 내가. 너는 가만 안 둘 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김상원

아니, 제 말 들, 먼저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따 만나시죠. 제, 이따가. 저녁 드시고,

가해자

뭘 만나?

김상원

저녁 드시고 얘기, 그니까 파출소에서 얘기해 보시라고요. 선생님. 이따가 효자동 파출소 가서.

가해자

아, 내가 너를 뒤흘게 만나. 이 자식아.

김상원

아니, 제가 안 올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가해자

너 아무튼 너, 너는 내가 가만 안 뒤.

